

# 아동의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김 영 민 · 박 선 경 · 최 보 경 · 김 선 주 · 초 설 결(충남대 소비자생활정보학과 4학년)

김 상 훈 · 김 신 규(충남대 소비자생활정보학과 3학년)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인터넷 이용의 보편화가 찾아오면서, 급격한 정보화에 따른 다양한 진통과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다. 큰 이슈가 되었던 10대 소년이 게임비를 마련하기 위해 모친을 살해한 사건이나 PC방에서 게임하던 부부가 집에 영아를 방치하여 사망 사건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중독’은 작게는 개인부터 가정, 심지어는 사회, 경제적 문제로 대두되어가고 있다. 행정안전부(2009)의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율이 성인의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들은 초등 저학년 시기에 49.1%가 인터넷을 처음 이용하였고, 초등학생들의 36.6%가 만 6~7세에 인터넷을 처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들은 만2세부터 컴퓨터로 게임을 한다고 하니 컴퓨터의 이용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조준오, 강신영, 2008). 게다가 Young(1996)의 새로운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 중독의 위험이 더 크며, 인터넷 중독자들의 83%가 인터넷 사용기간 1년 미만이라는 연구결과를 고려하면, 인터넷을 갓 접한 아동들이 인터넷 중독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 인터넷 중독에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와의 관계, 상호작용 등이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등으로 부모교육개발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인터넷 중독에 빠진 아동들은 사회성의 발달에 문제가 찾아오거나, 대인관계 기술에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에 빠진 후 치료보다는 처음 컴퓨터를 접할 시기부터 게임 중독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계속되어 강조되고 있다(강병재, 2005; 정아란, 엄기영,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곧 컴퓨터를 사용 할 아동의 부모들이 아동들에게 모범적인 컴퓨터 이용을 지도 시 필요한 정보 및 방법들을 제공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한다.

인터넷 중독 예방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만 2세 전후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1회기 당 50분씩 총 3회기로 진행된다. 1회기는 아동과 부모와의 상호작용, 의사소통 등의 어떠한 요인들이 아동들을 인터넷 중독으로 이끌게 되는지, 인터넷 중독의 악순환에 대해 설명하고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통제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함으로써 아동의 인터넷사용에도 부모의 관심과 교육이 필요함을 알게 한다. 2회기는 부모의 올바른 양육태도, 의사소통법 등을 관련 영상물과 역할극 등을 통해 익혀보며 인터넷 중독의 원인과 해결법을 배워보며, 3회기에는 자녀들이 인터넷으로 어떠한 콘텐츠를 접하게 되는지 알아보고 인터넷 사용 시 어떤 콘텐츠를 접하길 원하는지 인터넷-그린벨트를 만들어보면서 자녀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기준을 세워보면서, 부모가 아동의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받은 부모들을 통해 자녀의 인터넷 중독 예방에 대한 기초적인 환경이 마련될 수 있으며, 인터넷 중독 예방뿐만 아니라 건전한 가족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겠다.

\* 본 연구는 충남대학교 소비자생활정보학과 ‘생활교육 및 평가’ 교과목의 수행과제임